EduCore Daejeon
한국 교육의 중심 • 미래 교육의 중심 • 행복교육의 중심

가정통신문

담당: 교육복지안전과
주무관 홍선화
문의: ☎042-616-8825

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· 대처요령

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, 하천,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가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**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처요령**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유아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물놀이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.
- 사전에 "생활안전지도"(www.safemap.go.kr)를 통해 안전한 물놀이 장소 및 물놀이를 하면 안되는 장소를 확인합니다.
- 현장에서는 물놀이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은지, 주변에 안전요원,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◎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.
-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장에서 먼 곳(다리→팔→얼굴→가슴)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도록 합니다.

◎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이 안될 상황을 대비하여 물놀이 행선지를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합니다.
- 신고 시 위치가 상황실에 좌표로 전달되는 해로드앱(해양수산부)을 설치해두도록 합니다.

◎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
- 비치볼이나 장난감, 신발 등이 파도나 물살에 떠내려갈 때 잡으려 하지 말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

◎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때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◎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며, 음식물을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경과 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. ※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, 포만한 상태에서는 위압착이 일어날 수 있음

◎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거나,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.

◎ 물놀이 시간은 1~2시간이 적정하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.

◎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①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②즉시 119에 신고한 뒤 ③차분하게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하여 ④구조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 구조 필요시에는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하여 구조 시도를 합니다.

◎ 물에 빠질 경우 몸부림치지 않고 숨을 들이마신 채 수면에 눕거나 엎드려 뜨는데 집중합니다.

< 누워뜨기 자세 > < 엎드려뜨기 자세 >

2025. 7. 9.

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직인생략